

1. DMZ 평화순례 체험학습 안전교육.

6월 5일 수요일 13:00 실시.

• 버스 탑승 안전

- 출발예정시간 (07:00)보다 20분 먼저 도착 대기 (06:40)
- 버스 탑승 시 질서 지키기
-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 운행 중 돌아다니지 않기 등.

• 순례 행사 안전

-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
- 순례 행사에 참여하며 잘 듣고 기록하고 사진 남겨 소감록 작성하기
- 모래리역 탑승 시 전행요원의 지시와 주의사항 지키기 등

• 귀가 안전

-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 귀가 후 깨끗이 씻고 하루 안정 지키기
- 집으로 바로 귀가하기
- 보고서를 위한 자료 모으고 작성하기

2. DMZ 평화순례 '철원'

6월 17일 금요일

•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품고 사는 지역 '철원'

- 공여가 태봉국을 세웠고 후고려를 바탕으로 새로운 천하를 만들어가려다 실패한 장소.
- 6.25 이전까지 북한에 속한 영역이었다가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 끝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남한의 땅이 된 곳.

* 철원의 아픔.

- 철의 삼각지 전투 (철원군, 강화군, 평안군)

: 철원명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봉우리인 백마고지에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연휴 동안 벌어진 싸움.

포탄 가루와 주검이 쌓여서 무릎 높이까지 채워만큼 치열함.

해발 395m인 이 산봉우리는 명호산의 주인이 스물 네 차례나 바뀌며 만 4000여명에 가까운 군인이 죽거나 다쳤고 쏟아진 포탄만 30만발이 넘어서 눈이 전체적으로 1m 정도 낮아짐.

3. DMZ 평화순례

<철원 노동당사 → 국경선동맹학교 → 평화전망대 → 소이산>

② 철원 노동당사

-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 38선으로 나뉘었을 당시 철원은 북한에 속했음.
- 평양노동당사 다음으로 큰 공산당 건물.
- 철원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움직임이 활발하고 쌀 농사가 잘 되어 부유했던 지역으로, 노동당사는 소련스타일로 지어짐.
- 한국전쟁(6.25)로 인해 철원의 건물들은 거의 모두 파괴되었는데 노동당사의 잔해는 당시 전투의 치명함을 잘 보여주는 전쟁 유적이다.
- 평화의 소증함을 배울 수 있는 전쟁유적이다.

③ DMZ 평화문화광장 - 국경선통일학교

- 한반도 분단의 현장 마을 철원 DMZ 남쪽 민통선 안에 2011년 10월에 설립되어 강원도의 남북한 평화통일의 화끈한 의지를 드러내는 장소.
- 평화통일교육, 문화 예술 축제, 태봉국 역사 전시와 철원의 생태관 운영.
- 2017.7.1. 강원도청과 협력하여 남북한 평화통일의 일꾼을 육성하는 국경선 평화학교가 개교해 평화교육의 산실로 활용되고.
-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국제평화회의, 청소년 평화통일 축제 마당, 분단 70년 남북한 평화통일국제회의(2015년)가 개최되고, 매년 전국에서 찾아오는 많은 방문객들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이 진행됨.

④ 평화 전망대

- 2007년 준공, 비무장지대라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 제2땅굴과 군 막사, 검문소를 재현한 전시물과 비무장지대 사진 O.
- 50인승 규모의 모노레일 설치. → 쉽게 전망대 오를 수 O.
- 태봉국의 옛성터라 철원 평야 한눈에 바라볼 수 O.
- 쌍안경을 통해 북한군의 모습을 바라볼 수 O.

⑤ 소이산

- 철원시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명소
- 15~20분 정도 오르는 작은 산.
- 정상에 서면 민통선지역, DMZ, 북한 땅을 한눈에 볼 수 O.
-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 2011년 11월부터 개방.

4. 집으로 돌아오는길~!

한국 VS 이란 축구 이겼다!!

-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축구를 보았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 뜻으로 한창 응원하며 하나가 됐다.
- 축구를 응원할 때 하나가 되듯이 남북한도 하루 빨리 통일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5. 느낀 점.

안전교육 때부터 DMZ 가는 것이 정말 기대됐고 설렜다. 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인데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아침에 만났을 때도 정말 즐겁게 갔다. 먹이가 심해서 오랜 시간 비스에 타면 어지러운데 그마저도 신이 났다. 도착하기 전 막국수를 먹었다. 생각보다 내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맛있게 먹었다. 그 후 노름당사건물에 갔는데 정말 컸다. 주변에 큰 건물이 없는데 혼자 당당 남겨져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뭔가 안쓰러운 기분이었고, 전쟁 당시 격렬한 전투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리고 해방직후 전원은 북한의 땅에 속했다는 게 무척 신기했다. 내가 서있던 땅이 북한 땅이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다. 그리고 국경선 평화통일학교에 갔는데 이 학교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었다. 평화 통일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의지가 정말 많이 보였다. 또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이 아팠다. 통일을 해서 당장은 피해가 볼 수도 있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에게 훨씬 이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우리가 하루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굳이 뽑자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재가 많이 숨겨져 있고, 내장되어 있는데 가늠이 없어서 숨겨져 있다고 한다. 내 진로가 역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북한에 가서 문화재를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정말

많지만 노동력이 없고 자원이 없다. 하지만 북한엔 노동력과 자원이 있고
기술이 없다. 나는 우리가 통일만 한다면 정말 큰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과 남한의 국경지대에 소모하고 있는 국가예산이 몇백조
이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이들은 꼭 필요한 다른 곳으로 간다. 우리가 북한국가
라는 것은 국방 예산 즉,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이산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이산가족은 이제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시다. 이분들은 고작 몇백원으로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 계신다. 너무 안타깝고 빨리 해결 됐으면 좋겠다. 이 학회에
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통일을 말로만 원하고 있지 실천하고
있는게 없는 것 같아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평화 전망대에 갔다. 평화전망대에서는 비무장지대라 북한 지역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정말 가까운데 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았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졌었다. 빨리 북한의 아픔 겪고 있거나 통일 했으면 좋겠다.
소이산은 침묵하고 있었다. 정말 힘들었다. 경사가 가파랐지만 두치지지 않고
연심히 올라갔다. 중간에 똑작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었지만 꼭창고 올라갔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몸소 경험했다. DMZ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평화전망대와 다른 쪽에서 마주한 북한의 모습을 또다른 모습이라고 새로웠다.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다가 개방했다는데 정말 가보기 작했다고 생각했다.
천원, DMZ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못갈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아무렇게도 않게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는 나를 보며 신기했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음에 가차
여행 오자고 약속했다. 물론 그때 춘주쌤도 함께 갈 것이다. ^^

정말 좋고 값진 경험이었고, 다음에 죽기전에 꼭 다시 한번 가야할 곳이란
생각된다. 함께 가자 백두산까지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 내가 들었던 큰
한바탕.